새 노래

종 합 본

28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1(2012)

새 노래 종합본(28)을 내면서
(주체99, 주체100년편)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강산에 울려퍼지는 신념의 노래, 맹세의 노래.

천만이 하나가 되여 소리높이 부르는 이 노래들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백승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원쑤의 아성에는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기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시대의 명곡들이 수많이 태여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음악정치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이고 성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다운 음악은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며 시대의 사명에 이바지한다.》

주체99(2010), 주체100(2011)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노래 높이 부르며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창조한 거창한 변혁의 년대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받들어모신것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민족적대경사였다.

온 나라가 감격과 환희로 들끓고 혁명적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던 격동적인 시기에 천만군민의 심장을 울려주는 명곡들이 창작되여 이 땅 그 어데서나 힘있게 울려퍼졌다.

가요 《수령님축복》,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매혹과 흠모》, 《아 그리워》, 《인민사랑의 노래》,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과 같은 노래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의 세계,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었으며 가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은 장군님의 품》, 《당을 노래하노라》,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등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적대고조진군을 더욱 다그쳐나가는 천만군민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또한 선군조선의 벅찬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가요 《그이의 리상》, 《공격전이다》, 《곧바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번개치라 희천속도로》, 《희천에서 만나자》, 《구면친구》, 《무르익으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노래가 창작되자마자 천만군민의 심금을 틀어잡고 전투장들마다에서 선군조선의 장엄한 메아리되여 하늘땅을 들었다놓았다.

이 시기 생활적인 가요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설날》, 《종소리》, 《생일축하의 노래》,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 《내가 반한 그 총각》과 같은 가요들도 창작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더욱 이채롭게 단장하며 불리워지고있다.

이밖에도 예술영화, TV극노래들도 수많이 창작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생활의 길동무로 힘과 랑만을 안겨주었으며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선군시대 음악창작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몸소 한편한편의 노래들을 시대의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당에 대한 노래를 창작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여 가요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를 명가사,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하여 가요는 10월의 경축광장을 환희롭게 단장하며 천만군민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가요 《조선의 힘》은 《로동신문》 주체101(2012)년 1월 1일 1면에 크게 편집되여 민족이 당한 크

나큰 상실의 아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천만군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대소한의 추위와 무더운 삼복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작가, 작곡가가 되시고 지휘자도 되시여 수많은 노래들을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정녕 자신의 첫사랑은 음악이라는 귀중한 명언을 내놓으시고 선군시대 음악예술의 빛나는 장을 새겨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는 세세년년 천추만대를 두고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새 노래 종합본》(28)에 편집된 120여곡의 노래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선군시대 음악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시대의 명곡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체취와 숨결이 그대로 맥박치는 이 노래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고동치게 하는 영원한 그리움의 노래, 수령흠모의 노래, 맹세의 노래로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편 집 부

차 례

주체99(2010)년편

영화 및 텔레비죤극노래

주체100(2011)년편

영화 및 텔레비죤극노래

강성대국이 보인다

작사 윤두근
작곡 김운룡

2. 만복의 부귀영화 누려갈 새집
선군의 무릉도원 문패 빛나네
강성대국이 보인다 달려나가자 더 빨리
조국이여 최첨단과학기술로

3. 장군님 세계향해 대문을 열고
수령님 새집들이 축복하시네
강성대국이 보인다 달려나가자 더 빨리
조국이여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조국이여 장군님따라 앞으로

고요한 백두밀림

작사 리정술
작곡 리상룡

사색적으로 (♩=72)

2. 그리운 어머님 밝은 미소 어려있는
낯익은 구호나무 보시고 또 보시네
장군님 사색에 잠겨계시니
설레던 밀림도 고요를 드리네

3. 항일의 옛전장 노을속에 고요해도
장군님가슴속엔 눈보라 일어라
혁명이 가야 할 멀고도 먼 길에
성스런 백두산 안고가시네

곧 바 로

작사 김 철
작곡 안정호
활기넘치게 (♩=155)
1. 남 들 이 바람타고ㅡ 동쪽으로간 다ㅡ 고
천 리 마 여 가던길을ㅡ 우 리가 돌았던 가
곧 바 로 곧 바로ㅡ 수령님의손 길따 라
전 후 의 재를털고ㅡ 주 체의한길 왔 네
너 는 너 는 비약하며ㅡ 온 세 상 이 보란듯이ㅡ
곧 바로 달려왔 지 곧 바로 달려왔 지
곧 바로ㅡ 오 직 곧 바 로 ———

2. 남들이 돛을 달고 서쪽으로 간다고
천리마여 가던 길을 우리가 바꿨던가
곧바로 곧바로 장군님의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의 한길 왔네
너는너는 비약하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곧바로 달려왔지 곧바로 달려왔지
곧바로 오직 곧바로

3. 장군님 가리키신 강성대국 향하여
천리마여 네가 가는 그 길은 변함없다
곧바로 곧바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승리의 신심높이 주체의 한길 가리
너는너는 비약하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곧바로 달려가리 곧바로 달려가리
곧바로 오직 곧바로

공격전이다

2. 산악이 막아서도 답보가 없다
대적이 밀려와도 방어가 없다
순간도 멈춤없이 맞받아치는
그 전법은 필승불패다
(후렴)

3. 목표는 강성대국 희망봉이다
표대는 주체위업 승리봉이다
선군의 직선주로 폭풍쳐가는
그 걸음은 강행군이다
(후렴)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2.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그루마다 만복의 열매 넘치게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아지마다 새들의 노래 즐겁게
(후렴)

3.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만년대계 조국의 번영을 위해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후손만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후렴)

그이의 리상

2. 우리 고난의 그날에 피눈물 삼키며
내 나라 내 조국 빛내일 불타던 그 맹세
(후렴)

3. 총대를 높이 들고서 온 세상 굽어보며
찬란한 미래를 맞이한 선군의 내 조국
(후렴)

높이 울려라 혁명군가여

2. 시련에 찬 고비들을 군가높이 넘으며
우리 생활 사회주의 끄떡없이 지켰다
변치 말라 신념을 준 내 조국 수호전가
울려라 높이 울려라 혁명군가여

3. 선군조선 정신력을 군가높이 떨치며
장군님의 령도따라 신심높이 나간다
백전백승대오앞에 영원할 총진군가
울려라 높이 울려라 혁명군가여

내 조국이 흥하는 소리

작사 리태선
작곡 박무준

2. 하늘에선 우리 위성 통장훈을 부르더니
철갑상어 춤을 추며 바다로 나가누나
온 세상이 보란듯이 태양민족 떨쳐가니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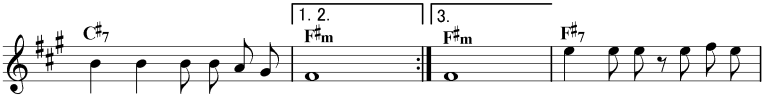
3. 5천년의 력사국에 이런 변이 있었더냐
강성대국 세워가는 그 기상이 멋이로다
선군승리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니
(후렴)

내 한생 따르는 품

2. 그 손길 잡고서 혁명을 알고
그 뜻을 따르며 고난 이겼네
동지로 불러준 믿음 언제나 못 잊어
심장의 노래 부르옵니다 아 장군님

3. 동산에 뜨는 해 서산에 뜨고
이 몸이 열백번 다시 산대도
장군님 따르는 마음 변함이 없으리
맹세의 노래 부르옵니다 아 장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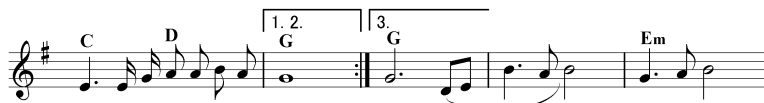
당은 장군님의 품

작사 윤두근
작곡 황진영
경축적으로 (♩=125)
1.그 품에안기면 어머니같고 그손잡으면 아버지갈네
이 땅에태여난 내삶의숨결 이어놓은그심장이 우리당이야
(후렴)
당 은 내나서 안겨사는집 당 은 내희망 펼치는대지
당 은 내운명 빛내여주는 영 원한푸른저하 늘
당 은 장군님의 품 품 랄 랄랄 랄랄라
노래부르자 랄 랄랄 랄랄라 우리의당을
랄 랄랄 랄랄라노래부르자 당 은 장군님의 품

2. 그 뜻은 예지의 해빛이런가
그 정 사랑의 봄빛이런가
주체의 빛발로 내 삶의 앞길
비쳐주는 그 등대가 우리 당이야
(후렴)

3. 그 위업 받들면 영광넘치고
그 품 따르면 승리만 있네
선군의 길에서 내 삶의 행복
꽃피우는 그 태양이 우리 당이야
(후렴)

랄랄랄 랄랄라 노래부르자
랄랄랄 랄랄라 우리의 당을
랄랄랄 랄랄라 노래부르자
당은 장군님의 품

당을 노래하노라

작사 차영도
작곡 황진영
정서적으로 (♩=75)
1. 수천길 바다속 진주와도같아라 내가슴 속의이노- 래
나에게 믿고살 그리움의별을준 그대는 사랑의하- 늘
(후렴)
그처럼정을다하 여 내삶을빛내준그 대 이세
상 -에 둘도없는품 내 운명 당이- 여 그대
1. 2.
3.
를 나는노래하노 라 라 아 —— 당 이여
위 대한 당이- 여 그대 를 나는노래하노 라

2. 그대를 책에서 나는 알지 않았네
생활이 알게 하였네
때로는 내 홀로 안고있던 괴롬도
그대가 가셔주었네
(후렴)

3. 천만의 아들딸 영웅으로 키워온
그대의 붉은 당기발
기폭에 어머니옷자락이 어려와
목메여 노래하노라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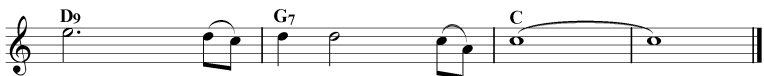
아 당이여 위대한 당이여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2. 만리대공 우주에 위성을 올린
그 자랑엔 청춘들 우리가 있다네
(후렴)

3. 강성대국 승리의 돌파구 여는
그 앞장엔 청춘들 우리가 있다네
(후렴)

명승의 칠보산

작사 문기창
작곡 차학철
자랑을 안고 (♩=120)
1. 동해명산 칠보—산의 승선대 오—르면
두—둥실 부부—바위 신—묘—하 네
골이 — 깊어 ———— 봉 이 —
마다 기암절경 펼 쳤 — 으니 —
칠보산은바위 풍 치 천하명승이라 오 천 —
하 의— 명 승 일— 세 —

2. 해칠보의 해돋이에 물들어 금바위요
내칠보의 벽계수는 옥구슬일세
그림처럼 아름답고 전설처럼 신비로운
칠보산은 바위풍치 천하명승이라오
천하의 명승일세

3. 칠보석이 빛을 뿌려 그 이름 칠보산
우리 당의 해빛 안아 칠보산일세
한번 보면 넋이 끌려 갈길을 잃고마는
칠보산은 바위풍치 천하명승이라오
천하의 명승일세

매혹과 흠모

2.베푸는 사랑 고마워 따르며 운명 맡기고
이끄는 령도 위대해 받들어 한몸 바치네
장군님 떠나 못살아 꿈에도 그리워 찾는
이것이 흠모이런가 이것이 흠모이런가

3.매혹은 흠모를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
흠모는 매혹이 터친 꺼질줄 모르는 불길
장군님뜻과 정으로 숨결을 이으며 사는
이것이 내 삶이여라 이것이 내 삶이여라

번개치라 희천속도로

2. 한치한치 암벽 뚫고 결사전으로
새 기적 떨치여간다
하루하루 백날 당겨 립체전으로
대고조승리 빛낸다
(후렴)

3. 선군령장 손길따라 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겨간다
대대손손 만복 누릴 락원 꽃피워
축포성 높이 울리자
(후렴)

복받은 제대군인 새가정

2. 부엌에도 들어서시여 가마도 열어보시고
방안에는 전기온돌 따스하다 기뻐하셨네
벽에 걸린 메주가 벽에 걸린 메주가
류다른 풍경이라셨네
아 장군님 그 사랑은 친부모사랑이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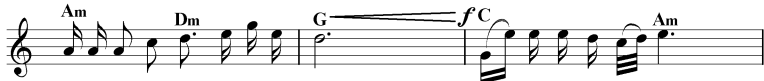
3. 꿈과 같이 받은 사랑 해빛같이 따뜻해
전설같은 그 이야기 온 나라에 전해졌네
자애로운 그 품에 자애로운 그 품에
인민은 안기여사네
아 장군님품에 안긴 행복은 끝없어라

북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작사 최준경
작곡 박성남

2. 천리만리 강행군길 이어가시는
그 자욱을 비치여갈 북두칠성아
장군님 계신 곳은 최고사령부
우리러따르는 맘 실어가다오
아 그리움의 별이여

3. 그리움의 천만심장 이끌어주며
우리 신념 불태우는 북두칠성아
세상끝에 간다 해도 태양만을 따를
우리 맘 너와 함께 변치 않으리
아 그리움의 별이여

비날론 삼천리

2. 전선길에 맞으신 눈 솜에 스며 포근해
공장길에 남기신 정 실에 어려 따스해
고난의 그날에 지켜준 행복
선군으로 빛내주었네
비날론 삼천리 비날론 삼천리
장군님 펼쳐주셨네

3.세상끝에 늘이며는 이 행복을 다 볼가
세월끝에 닿으며는 그 사랑을 다 알가
민족이 누려갈 만복의 재부
후손만대 이어주었네
비날론 삼천리 비날론 삼천리
장군님 펼쳐주셨네

비날론폭포 만복의 폭포로세

2. 인민의 살림 흥하게 하는 비날론이 쏟아지니
수령님영상 뜨겁게 어려 우리 가슴 젖어드네
아헤 헤야 장군님 펼쳐주신
선군시대 비날론폭포 만복의 폭포로세

3. 주체의 솜이 대하로 흘러 강성대국 수를 놓네
인민이 모두 잘살게 되니 사회주의승리로세
아헤 헤야 세상에 자랑하세
선군시대 비날론폭포 만복의 폭포로세

비약의 속도 CNC바람

작사 리호성
작곡 한진옥
빠르고 들썩하게 (♩= 132)
1. 선 ― 군 의 천리마가― 날 으 는 이땅우에―
날 ― 마 다 들려오는― 첨 단돌 파 새 소식―
장 군님헌신 의 그자-욱따라 조 국은번개 쳐 달려-간다오
(후렴)
아 ― 힘 - 이 솟 네 ―
아 ― 멋 이 로 세 ―
비 약 의속도 C N C바람 전변의세 월-
펼 치 ― 며 만 복을불러온다 네

2. 어제는 강선에서 오늘은 희천에서
세차게 타번지는 기적의 그 열풍
장군님구상을 꽃피워가며
온 나라 강산이 들끓는다오
(후렴)

3. 선군의 강성대국 문패를 걸어놓고
승리의 축포소리 더 높이 울리리
장군님 펼치신 밝은 미래로
인민은 한마음 나래쳐가리
(후렴)

백두의 산제비

2. 구름의 바다에 천지의 물우에
산제비 나래치네 해연처럼 날으네
성스런 백두의 뜻 그 높이를 새기려
하늘아래 첫산에 보금자리 정했나
네 모습 장하구나

3. 백두를 안은 내 마음의 노래여
백두산을 못 떠나는 내 마음의 불새야
언제나 희망넘친 삼천리의 아침을
폭풍에 더 억세진 나래우에 실어라
백두의 산제비야

백학이 날아든다

작사 리지성
작곡 황진영
홍겹게 (♩. = 118)
1. 새 로생긴간석- 지 넓 은벌— 에 백 ——학 이
날 아든다- 서 해물 결일 던곳에 황 금물결일 렁이니
(후렴)
저저 마 다쌍을지어 날 아든-다오 로 —동당 —이
펼 친전 -변 온 —세상 — 에 자 랑하—며
여기 서 도너 울- 저기 서 도너 울- 백 학 이
춤추며날아든-다 오 로 —동당 —이 펼 친전-변
온 —세상 — 에 자 랑하— 며 여기 서 도너울-
저기서도너울- 백 학 이 춤추며날아든-다 오 —

2. 날바다가 희한한 옥토되니 백학이 날아든다
전야에는 기계동음 그림같은 선경마을
전설속의 무릉도원 여기로구나
(후렴)

3. 선군시대 새 풍경 노래하며 백학이 날아든다
천지개벽 지평선에 낟알산이 솟아나니
천만복이 이 땅우에 꽃펴난다오
(후렴)

로동당이 펼친 전변 온 세상에 자랑하며
여기서도 너울 저기서도 너울
백학이 춤추며 날아든다오

사과처녀

작사 리지성
작곡 황진영
명랑하게 (♩=105)
1.하 얗게사과꽃이 피여나-면 내웃음도방긋웃는
꽃같 다나 사과나무가꿔가며 노래부를땐
(후렴)
내목소리청-고운 새와같다나 장 군 님
다녀가 신 과 원 이 하도좋 아 이 내정 성
알 뜰살 뜰 바 쳐 가 - 니 사람들은날보고
정답게불러요 사 과처녀라- 고 라라라라라라라
정 다 운그 이름 그 이 름나 는좋 아 요

2. 빨갛게 사과들이 익을 때면
내 볼도 붉게 곱게 익었다나
그윽한 사과향기 풍겨갈 땐
내 청춘도 향기가 넘쳐난대요
(후렴)

3. 어버이사랑어린 꽃이여서
나는야 사과꽃이 제일 좋아
그 은정 열매되여 주렁질 땐
나의 보람 나의 행복 끝이 없어요
(후렴)

사회주의멋이라네

2. 비날론이 폭포치며 쏟아지니 멋이라네
주체철의 불노을이 타오르니 멋이라네
사회주의 내 나라에 만복이 넘쳐나니
얼싸 좋아 절싸 좋아 잘살날 오네
사회주의멋이라네

3. 장군님이 가꿔주신 무릉도원 멋이라네
수령님의 평생념원 꽃피는 땅 멋이라네
사회주의강성대국 이 땅에 우뚝 솟아
얼싸 좋아 절싸 좋아 승리가 오네
사회주의멋이라네

선군시대는 영웅시대

작사 리지성
작곡 황진영
힘있고 박력있게 (♩= 128)
1. 조 국 은우 리를 부 른 다 나 서라천—만의
심 장 아 원 대 한포 부와 리 상 이
꽃 피 는거 창한 시 대다 거 세 찬파 도의
정 열 로 떨 치 라위 훈 을 위 대
한 —선군— 시대는 영— 웅 —시 대 다 위대
한 —선군— 시대는 영— 웅 시 대 다

2. 조국은 묻는다 기적과 혁신의 주인공 누구냐
애국에 몸바쳐 돌격로 열어간 기수가 누구냐
행복의 뿌리될 의지로 구슬땀 뿌리라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3. 장군님 선군의 빛발로 펼치신 빛나는 이 시대
강성대국의 만세를 울리며 백승을 떨친다
내닫는 폭풍의 기세로 달려라 미래로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위대한 선군시대는 영웅시대다

선군풍경 노래하세

작사 문기창
작곡 백성일

2. 선군덕에 강국이 된 내 나라 돌아보니
   군민포전 군민다리 그 이름 많고많소
   군민노래 좋아 군민일치 좋아
   장군님 꽃펴주신 선군풍경 노래하세 하
   노래하세

3. 백두령장 손길따라 승리를 떨쳐가는
   내 나라의 천지개벽 선군의 자랑일세
   선군시대 좋아 선군풍경 좋아
   장군님 꽃펴주신 선군풍경 노래하세 하
   노래하세

선군을 노래할 때

2. 풍요한 대지에 비기여볼가
부흥의 열매를 가꿔준 선군
만복의 열쇠라고 말하여볼가
기적을 안아온 선군
아 우리 당의 선군을 노래할 때
어데 비기면 어데 비기면
그 위대함 다 담을가

3. 승리의 기치라 노래부르리
강국의 리상을 꽃펴준 선군
은혜론 해빛이라 노래부르리
이 조선 빛내준 선군
아 우리 당의 선군을 노래할 때
장군님영상 장군님영상
태양으로 안겨오네

설 날

2. 가야 할 저 언덕우엔 희망의 노을이 불타네
고난의 천리를 헤치고 락원의 미래를 향해 가리
희망의 설날 동은 트고 축복의 아침 우리 맹세해
선군의 조국 장군님조국 영원히 받들리라

성강의 붉은 파도여

작사 송찬웅
작곡 차학철

2. 수령님 바라시던 주체철 쏟아지니
환희의 파도소리 기슭에 차넘쳐라
장군님 안겨주신 그 믿음 뜨거워
낮에도 철썩 밤에도 철썩 성강의 붉은 파도여

3. 강선의 노을 안고 천리마 나래치듯
성강의 불길 안고 강국이 치솟아라
장군님 높은 뜻을 강철로 받들어
내닫는 기상 돌진의 기상 성강의 붉은 파도여

수령님축복

2. 위성이 하늘을 날을 때도 주체철이 흐를 때도
남먼저 가슴에 들려오네 우리 수령님 그 음성
장한 일을 해냈다고 평생소원 풀렸다고
수령님 뜨겁게 축복해주시네 축복해주시네

3. 흥하는 선군락원에 천만복이 꽃필수록
더더욱 그리워 달려가네 우리 수령님 그 품에
장군님을 받들어 강성대국 떨치라고
수령님 뜨겁게 축복해주시네 축복해주시네

숭고한 경의

2. 피로써 지킨 향토가 있어
푸른 잔디 내가 밟아라
선렬들의 그 삶이 비낀
밝은 창문 우리 열어라
(후렴)

3. 선렬들 새긴 그 자욱 이어
붉은기 들고 나아가는 길
장군님따라 우리 기어이
최후승리 이룩하리라
(후렴)

승리자의 선언

2. 전승을 안아온 그날의 기상
이 땅에 백배로 차고넘친다
방패와 장검을 함께 벼려든
우리의 경고엔 빈말이 없다
(후렴)

3. 행성을 뒤흔든 우리의 국력
평화를 위하여 우뢰치리라
정의의 총대는 불벼락 터쳐
승리를 승리로 이어가리라
(후렴)

시간이여 우리를 따르라

2.비약의 룡마에 박차를 가해
시간을 앞질러가라
장군님 정해준 강성대국의
시간표 어길수 없다
(후렴)

3.누구나 시간에 쫓기지 말고
휘잡아 따라세우라
장군님시간의 초침이 되여
선군의 강국 빛내자
(후렴)

자식자랑 성수났소

2.하늘 나는 비행사영웅이라 만이의 자랑이요
해안포병 딸자식 편지에도 자랑가득 넘친다네
장군님과 함께 찍은 사진 감격하여 바라보며
령감로친 너무 좋아 하 싱글벙글 싱글벙글
령감로친 싱글벙글 자식자랑 성수났소

3.아들딸들모두다 일당백의 병사로 키웠으니
우리 마을 자랑인 감나무집 온 나라가 다 안다네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대가정되였다고
령감로친 너무 좋아 하 싱글벙글 싱글벙글
령감로친 싱글벙글 자식자랑 성수났소

장군님 꽃펴주신 내 조국이라오

2. 강선땅의 전기로엔 쇠물꽃 피여나고
하늘에는 우리 위성 더 높이 떠올랐네
천지개벽 새 모습 끝없는 이 땅은
장군님 꽃펴주신 내 조국이라오
아 장군님 꽃펴주신 내 조국이라오

3. 우리 인민 누리며 살 만복을 주시려
헤쳐오신 자욱마다 락원이 솟아났네
선군의 길 따라서 더욱더 부강할
장군님 꽃펴주신 내 조국이라오
아 장군님 꽃펴주신 내 조국이라오

조국이 찾는 모습

2. 조국의 무거운 짐 두어깨에 떠메고
장군님 그리며 산악같이 나서더라
할일 많은 내 조국의 기발이 된 선구자
최첨단 높은 령에 그 모습이 있더라
선구자의 그 모습

3. 조국의 번영 위해 그 무엇을 아끼랴
오늘에 바치는 땀 피보다도 진하더라
장군님부름에 육탄이 된 영웅들
강성대국기념비에 그 모습이 있더라
영웅들의 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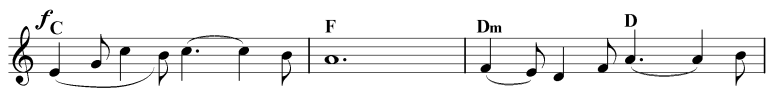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매우 힘있게 (♩=120)
1. 주 체의 사회주의를 우리어떻게
총 대로 지키는가를 세계여보 라
조 선은결심하면 한 다 조 선은한다면한
다 장 군 님백 승의 령 도따라서 선
군 의붉 은기 그 신념으로 조 선은결 심하면
한 다 조 선은 한 다면한 다

2. 주체의 강성대국을 우리 어떻게
이 땅에 세우는가를 세계여 보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장군님 애국의 뜻을 받들어
불굴의 정신력 그 배짱으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3. 주체의 붉은 노을을 우리 어떻게
누리에 펼치는가를 세계여 보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장군님위업의 승리 위하여
백두의 공격전 그 기백으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조선은 한다면 한다

종 소 리

작사 집 체
작곡 안정호
정서적으로 (♩.=75)
mf
C G7 C Am
1. 하 야 ―게내리는 눈발속―으로 ―종 소 ―리울리여―오
Dm G7 C C7 F
네 ―― 그 리 ― 운장 군님 계 신곳―으로 ―이
G7 C G7
마 ― 음실 고흐―르 네 우리의행복을꽃 피― 워
C Dm C G7
또한해헤쳐오신 위대한사랑의그 길― 을 가슴에새겨주네
f
C F Dm D
아 ――― 종 ― 소 리 추 ―억 의종 ― 소
G7 F#m7-5 G7 C
리 ―― 정 답 ― 게울 ― 리 네 ――

2. 웃음꽃 피여난 창가마다에 종소리 울리여오네
어버이장군님 인민을 위해 바치신 로고 전하네
설날의 눈길을 떠나서 이밤의 눈길 이어
걸으신 천만리 자욱에 한해가 실렸어라
아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뜨겁게 울리네

3. 이 땅에 찾아온 설날 알리며 종소리 울리여오네
위대한 장군님 따라서 온 길 끝까지 우리 가리라
동무여 새해도 맡은 일 더 잘할 맹세 안고
우리의 장군님 위하여 축배를 높이 들자
아 종소리 희망의 종소리 힘차게 울리네

주체철 제일이야

2.쇠물이 끓는다 아헤
기쁨이 넘친다 아헤
주체철이 풍년드니 오곡백과 물결친다
아헤 아에헤 우리것 제일이야
인민의 천만복이 이 땅에 꽃펴난다

3. 최첨단기술로 아헤
세계를 앞선다 아헤
주체철로 강성대국 대들보 얹어간다
아헤 아에헤 우리 힘 제일이야
더 좋은 앞날이 이 땅에 꽃펴난다

아헤 장군님 안아오신
우리의 주체철 세상에 제일이야

청춘의 약속

작사 최준경
작곡 전민철

2. 방직공들 강물보며 말하기를
우리 짜낸 비단처럼 흘러간다네
기계공장 총각들도 말하기를
우리 펼친 기계바다 더욱 크다네
혁신의 그 자랑 커갈수록
청춘의 사랑도 깊어간다네
라 깊어간다네

3. 강물우에 둥근달도 내려앉아
청춘들의 밝은 앞날 축복해주네
강성대국 만복의 문 활짝 열 때
두 공장의 처녀총각 한가정되리
강물도 그 약속 고이 싣고
행복의 바다로 흘러간다네
라 흘러간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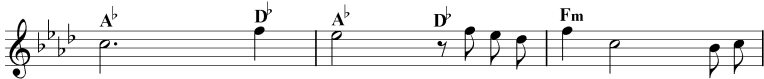
타오르라 우등불아

작사 차영도
작곡 안정호
랑만적으로 (♩.=118)
1. 청 춘들의노 래소 리 울 리는 곳에 타 오른다우 등 불
건 설장 의불 장 군 님지 펴주신 심 장의 불길
(후렴)
당 중앙을따 라서 더 욱불 탄다 - 바 치 -자피 끓는
청 춘의 열정 부 강조 국떨 치는 길 에 ——우
리 -의젊음은 치솟는 불길 폭 풍우 도두 렵지 않 다 -더세
차 게 더세차 게 - 타오 르 -라우 등불 아

2. 돌격소리 우뢰치는 격전장마다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의 불
장군님 그리움에 불타는 불길
당중앙을 따라서 위훈떨친다
(후렴)

3. 이 땅우에 강성대국 그날 그리며
타오른다 우등불 건설장의 불
백두의 기상어린 승리의 불길
당중앙을 따라서 영원하리라
(후렴)

평 양

작사 차영도
작곡 황진영
환희에 넘쳐 (♩=130)
1. 해 빛도밝 은 나의평양은 이 름도아름다워
라 온세 상 이 그이 름 을 노래 처 럼-부 르
네 평 양 우리의 사 랑 끝 없는영광의도
시 평 양 태양의 성 지 온누
리 에 빛을뿌려 라 자랑 차 다 나 의평 양 위-
대 한 조국의심 장 영- 원 한 나의수도 여
(후렴)

2. 그대가 새벽창문을 열면 새날은 눈부시여라
   인민들의 모든 꿈이 이 거리에 꽃피네
   평양 젊음이 넘친 희망찬 아침의 도시
   평양 태양의 미소 하늘가득 어리여온다
   (후렴)

3. 그대의 억센 신념과 같이 붉은기 날리는 평양
   넓고넓은 광장에는 일심대오 끝없네
   평양 민족의 기상 넘치는 불굴의 도시
   평양 여기서 우리 세계향해 달려나간다
   (후렴)

행복의 니나니 난노

작사 윤두근
작곡 황진영
아주 흥취나게 (♩=138)
1. 아 ㅡ오 곡이 물결친다ㅡㅡㅡ 농 장마다
전야마다 백 과가물결친- 다 이 풍년뒤덕이 냐
이기뻠뒤덕 이 냐 장 군 님 은덕이-라- 네 ㅡ
우리살림니나니난 노 우리생활니나니난 노
주체농법꽃이-피여 로적가리높아-가니 니나니가니나니난
노 행 복 의 니 나 니나니난 노 ㅡ
노 아 ㅡ 나 니 요 ㅡ
행 복 의 니 나 니나니가 난노ㅡㅡㅡ
1. 2.
3.

2. 아 비단필 쏟아진다
공장마다 기대마다 만복이 쏟아진다
이 경사 뉘덕이냐 이 부흥 뉘덕이냐
장군님은덕이라네
우리 살림 니나니 난노 우리 생활 니나니 난노
첨단향해 나래치며 새 기적을 창조하니
니나니가 니나니 난노 행복의 니나 니나니 난노

3. 아 리상이 꽃펴난다
수령님의 평생소원 이 땅에 꽃펴난다
이 전변 뉘덕이냐 이 자랑 뉘덕이냐
장군님은덕이라네
우리 살림 니나니 난노 우리 생활 니나니 난노
사회주의 만세소리 온 세상에 울려가니
니나니가 니나니 난노 행복의 니나 니나니 난노

아 나니요 행복의 니나 니나니가 난노

행복의 아리랑고개를 넘소

2. 궁궐같은 새집들엔 노래소리 울리고
강물우엔 발전기들 볼만 하구려
무릉도원 저속에서 내 딸도 살려니
걸음걸음 나래돋쳐 고개 넘어간다오
(후렴)

3. 마중나온 막내딸이 가슴뭉클 전하여주는
장군님의 그 사랑에 목이 메였소
흰눈덮인 이 고개를 넘고넘으며
락원펼친 그 은공에 큰절을 드리오
(후렴)

장군님은덕에 행복의 아리랑
노래 절로 나네

희천에서 만나자

2. 새해의 첫아침 언제 찾아 눈길 헤쳐오셨네
   4월의 그 봄날 물길막장 석수 헤쳐오셨네
   그리운 장군님 뵈오려면 청춘들아 오시라
   근위병영예를 떨치려면 희천으로 오시라
   희천에서 만나자

3. 장군님결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땅이다
   력사의 기적이 소리치며 솟아나는 땅이다
   조국에 심장을 바치려면 청춘들아 오시라
   선군의 금별로 빛나려면 희천으로 오시라
   희천에서 만나자

희천의 불빛

2.눈보라가 기승을 부리고
모진 고난 앞을 막아도
뜨겁게 고동치는 우리의 심장
그 누구도 식히지 못하리
아 희천의 불빛
건설자의 신념인가 빛나네

3.우리들은 불의 창조자
용감한 자연의 정복자들
산과 강 막으며 쌓은 언제는
내 조국의 찬란한 빛이 되리
아 희천의 불빛
건설자의 긍지인가 빛나네

꼭 오실거야

2.오시면 우리 노래 기쁘게 들으시며
전선길의 피로도 풀린다 웃으시리
따뜻이 안아키운 자식들 보고싶어
우릴 찾아 장군님은 꼭 오실거야

3.오늘도 기다리네 탐구의 열정속에
아버지 오실 그날을 그날을 기다리네
전선길 저 멀리로 꿈에도 달려가는
우릴 찾아 장군님은 꼭 오실거야

뚝쟁이총각

작사 박영순
작곡 백성일
건드러지게 (♩.=120)
1. 공 장 에서— 소 문난— 혁 신 자 총 각 —
군 대 에서— 단 -련 된— 멋 쟁 이 총 각 —
아 침마 다출근— 길 함 께가도— 살 뜰한 말한마—디
할 줄몰라요 아 —— 뚝 쟁 이 —
뚝 쟁 이 — 총 각 —— 아 마 도—아 마 도
뚝 한것이 —— 천 성 인 - 가 봐 ——

2. 심장속에 열정이 불타는 총각
우리 직장 현대화에 앞장선 총각
영예의 게시판의 사진 봐도
웬일인지 내 가슴 콩콩 뛰여요
아 뚝쟁이 뚝쟁이총각
아마도 아마도 뚝한것이 성격인가봐

3. 공장마을사람들 탐내는 총각
처녀들의 고운 마음 흔드는 총각
저녁마다 퇴근길 헤여져도
그 모습 얼른거려 잠 못들어요
아 뚝쟁이 뚝쟁이총각
아마도 아마도 뚝한것이 매력인가봐

아 그리워

작사 문재철
작곡 고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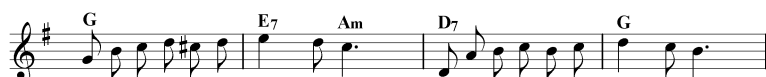
2. 저녁마다 별이 돋는 저 하늘가 바라보면
별빛속에 어려오는 장군님 그 모습
눈내린 공장길 걸으시며 행복을 꽃펴주시네
아 그리워라 **김정일**장군님

3. 아침에도 저녁에도 깊고깊은 한밤에도
온 나라 돌보시는 장군님 그 모습
우리의 리상을 꽃피우며 이밤도 지새우시네
아 그리워라 **김정일**장군님

어떻게 아실가

2. 자랑많은 고향땅에 사랑을 바쳐가는
우리만이 아는 이름 어떻게 아실가
쉬임없는 선군길 그처럼 바쁜 속에
그 처녀 이름을 그 처녀 이름을 어떻게 아실가

3. 그이께선 일 잘하면 누구나 아시고
그이께서 아시며는 온 나라가 다 아네
장군님의 뜻으로 애국의 맘 불태우는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이름도 그이는 다 아시네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2. 이 땅의 주렁진 열매도 그대가 가꿔주고
이 땅의 정의와 존엄도 그대가 지키였네
언제나 인민을 이끌어 승리를 펼치는 당이여
부강과 번영을 안아온 그 손길 고마워라
(후렴)

3. 그대를 따라서 백두의 혈통을 이어가며
그대를 받들어 태양의 위업을 떨쳐가리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당이여
천만년 선군의 한길로 이 조선 이끄시라
(후렴)

영원한 태양의 봄

2.친근한 그 이름은 꽃축전에 빛나고
찬란한 그 업적은 봄축전에 울리네
4월은 4월은 수령님 안고오신 봄
만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태양의 봄

3.태양절 불보라는 이 세상의 끝까지
주체탑 불노을은 이 세월의 끝까지
4월은 4월은 수령님 안고오신 봄
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태양의 봄

영원히 사령부결에

2. 적탄이 비발쳐도 사령부결에
   한몸이 방패되여 사령부결에
   백두광야의 그 어데나 조국의 운명 지킨 자욱있네
   아 어머님 우리 어머님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령부결에

3. 오늘도 주작봉우에 높이 서시여
   태양을 옹위하여 사령부결에
   전사가 설 자리 어딘가를 천만의 가슴에 새겨주네
   아 어머님 우리 어머님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사령부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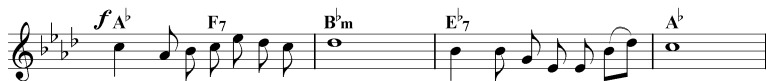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작사 최준경
작곡 조경준
흥취나게 (♩.=126)
1.쏟 ㅡ아진 다 쏟 ㅡ 아진다ㅡ 비 날론 솜ㅡ 쏟아진
다 우 ㅡ 리생 활 꽃 ㅡ 피워 갈ㅡ
천 만복 이ㅡ 넘쳐 난 다 얼 씨 구좋 아ㅡ 라
절 씨 구좋아ㅡ 자 력갱 생보 람ㅡ일 세 장 군 ㅡ님
손 길ㅡ 따라 변 ㅡ이나 는 내 나ㅡ라에
비 날론솜풍년ㅡ 온 나ㅡ라의ㅡ 대 경 ㅡ사로ㅡ 세

2. 폭포친다 폭포친다 비날론솜 폭포친다
수령님께 기쁨드릴 통장훈을 불렀다네
얼씨구 좋아라 절씨구 좋아 고생끝에 락이 왔네
장군님 선군으로 흥해가는 내 나라에
비날론솜풍년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3. 물결친다 물결친다 주체비단 물결친다
온 세상이 부러웁게 부귀영화 누려가세
얼씨구 좋아라 절씨구 좋아 사회주의승리로다
장군님 펼치시는 강성대국 내 나라에
비날론솜풍년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우리는 길이 전하리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절절하게 (♩=66)
1. 이 땅에화창한 C N C봄이 그 언제어떻게 꽃펴났던가
고 난의겨울에 눈속에가꾼 그사연 가슴뜨겁 네
시 련의숫눈길헤 쳐 옷 자락날리시— 던
그 날의장군님모 습 오 늘도눈에어리 네 네
고 난의그행군길 에 최 첨단봄을꽃피 운
그 날의장군님업 적 우 리는길이전하 리

2. 그때에 장군님 품고 나섰던
나라의 자금은 얼마였던가
조국은 구원의 손을 내밀고
인민은 옷깃 잡았네
어디에 어떻게 쓰랴 피눈물 삼키시던
그날의 장군님마음 오늘도 가슴어이네

3. 조국을 일으켜 꽃을 피우면
인민들 생활엔 열매 맺히리
이 땅에 CNC봄씨앗 뿌려
첨단의 새봄 가꿨네
희한한 조국번영의 새시대 펼쳐주신
그날의 장군님로고 오늘도 잊을수 없네

고난의 그 행군길에 최첨단봄을 꽃피운
그날의 장군님업적 우리는 길이 전하리

우리 집사람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아주 흥취나게 (♩.=134)
1. 내 마 음 에 ㅡ 봄 빛 처 ㅡ 럼
ㅡ 따 스 히 스 ㅡ 며 들 ── 고 ㅡ
내 가 슴 에 ㅡ 노 래 처 ㅡ 럼
ㅡ 정 답 게 안 ㅡ 긴 사 ── 람 ㅡ
제 대 되 여 고 ㅡ 향 에 온 못 잊 을 그 봄 날 ㅡ 에
꽃 다 발 의 인 ㅡ 연 으 로 한 가 정 이 루 었 ㅡ 네 아 ──
────── 내 사 ㅡ 랑 ㅡ 정 ㅡ
다 ㅡ 운 우 ㅡ 리 ㅡ 집 사 ㅡ 람 ㅡ

2. 내 열정이 식을가봐 심장에 불을 달고
내 걸음이 뒤질가봐 떠밀어주는 사람
길이 험해 지칠 때면 앞에서 부축이고
일이 많아 지셀 때면 곁에서 잠 못드네
아 내 사랑 고마운 우리 집사람

3. 내 인생에 동행자로 있어야 하는 사람
내 한생에 방조자로 없으면 안될 사람
행복의 배 함께 타고 생활의 노를 저어
비쳐주는 등대따라 영원히 같이 가리
아 내 사랑 귀중한 우리 집사람

우린 몰랐네

작사 김형찬
작곡 김문선

2. 우리 농장 발전소도 청춘과원도
그이의 기쁨될줄 미처 몰랐네
우리 살림 우리 행복 꽃피웠는데
감사까지 주실줄은 정녕 몰랐네
아 장군님 장군님 주신 감사
어버이의 자애깊은 은정 은정이여라

3. 세상만복 다 주시는 크나큰 사랑
이리도 끝없는줄 다는 몰랐네
우리 먼저 올려야 할 감사의 인사
우리 먼저 받을줄은 정녕 몰랐네
아 장군님 장군님 주신 감사
대를 이어 빛내여갈 영광 영광이여라

인민사랑의 노래

2. 온 나라 다녀오시면 만나본 인민들 생각
먼 나라 찾아가시면 두고온 인민들 생각
눈비도 달게 맞으며 고생도 락으로 삼는
장군님의 마음 첫자리 그곳엔 인민이 있네

3. 인민의 락원 가꾸려 주체의 해빛되셨네
인민의 운명 지키려 선군의 보검되셨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 합치면 인민뿐이네

잊지 말자 그날의 영웅들을

2. 멸적의 총창높이 적진을 부시며
승리의 날 목메여 그리던 전우들
결전의 언덕우에 남기고 간 그 자욱
오늘도 이 광장에 찍혀져있어라
(후렴)

3. 장군님 받들어 세대를 이어갈
백승의 대오속에 그 모습 빛나네
그 위훈 뿌리되여 떠올린 락원에
그대들 붉은 넋은 꽃피고있어라
(후렴)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2. 이 땅에 누구도 못해본 일심의 화원 가꾸고
세상에 누구도 못 세운 인덕의 락원 꾸렸네
주체의 강국을 꽃피운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였던가

3. 오늘도 자주의 빛발은 누리를 밝게 비치고
래일도 반제의 한길에 선군의 승리 빛나리
주체의 영원한 태양인 **김일성**대원수님
얼마나 위대한분을 우리가 모시였던가

내 한생 뿌리가 되리라

예술영화 《그는 탄부였다》 중에서

작사 황성하
작곡 김영성

뿌리는 땅속에 묻히여있어도
해빛은 뜨겁게 뿌리에 흘러드네
태양의 빛발로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위해
내 한생 억세인 뿌리되리 뿌리가 되리라

탄부의 노래

예술영화 《그는 탄부였다》중에서

작사 황성하
작곡 전창일

땅우에선 이 모습 보이지 않아도
부강조국 숨결속에 내 인생 남으리
우리 평양 불빛이 찬란히 빛날 때
가슴속에 탄부의 영예가 넘치네

김정일장군님 온 세계를 이끄신다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제4,5부)중에서

위대하다 강대하여라 선군의 조선아
이 세상 그 어데서도 네 모습 영광넘쳐라
천년만년 부강번영 길이 빛날 선군조선아
김정일장군님 온 세계를 이끄신다

김정일장군님 만만세

영웅은 당부하네

예술영화 《내가 사는 가정》중에서

나에게 물어보네 영웅은 물어보네
어떤 자욱을 어떤 자욱을 너는 찍어가느냐
조국이 바라는 길에 삶의 흔적 남겼는가를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뜨겁게 속삭이네

나에게 당부하네 영웅은 당부하네
장군님사랑 장군님사랑 부디 잊지 말라고
피와 땀을 바침없인 보답의 길 갈수 없음을
새겨가리라 새겨가리라 영원히 내 심장속에

복받은 대지여

은혜로운 태양이 따사로이 비치여
백두고원 넓은 들에 해빛을 뿌려주네
하많은 사연 전하는 영광의 땅에서
청춘의 사랑 꽃피워 행복을 가꿔가네
(후렴)

살기 좋은 대홍단

예술영화 《복받은 대지에서》중에서

은혜로운 그 사랑이 안아왔다오
무릉도원 별세상을 펼쳐주었소
앞집 아들은 대홍이요 뒤집 딸은 홍단이라
전설같은 이야기 전설같은 이야기 기쁨속에 전해가오

수령님의 그 념원을 이 땅우에 꽃피우신
장군님의 은덕을 장군님의 은덕을 천년만년 노래하세

너는 내 마음

예술영화 《산촌에 피는 노을》중에서

내 희망 어려있어 불타는 노을아
래일을 안고사는 너는 내 마음
(후렴)

내 고향 산촌에 피여난 노을아
언제나 내 마음도 너처럼 불타리
(후렴)

해님 따라서

예술영화 《산촌에 피는 노을》중에서

내 마음 너를 위해 꽃잎이 되고
네 마음 나를 위해 향기되였지
기쁠 때에도 동무 힘들 때에도 동무
너도나도 함께 한길을 가자
해님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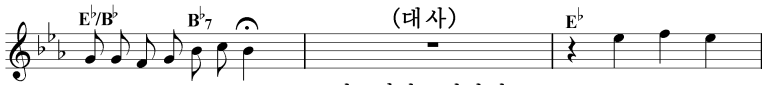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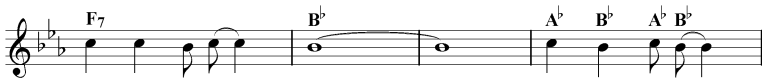
랄랄라라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라라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멀리 있어도 동무 곁에 있어도 동무
너도나도 함께 한길을 가자
해님 따라서

장군님 이밤이 깊었습니다

예술영화 《설풍경》 중에서

작사 한창우, 방금석
작곡 박병우

민족음식 제일일세

예술영화 《설풍경》중에서

노래하세 막걸리는 우리 민족 자랑이라
천길땅속 맑은 물에 누룩잡고 담그며는
단맛신맛 상쾌한 맛 한모금에 힘솟고
너도나도 기분좋아 둥둥
(대사)
남: 야,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
녀: 정말.
얼씨구나 막걸리는 우리 민족 자랑이로세
우리 맛이 제일일세 막걸리가

자랑하세 감자음식 세상에서 으뜸이라
농마국수 감자떡은 흰쌀밥도 울고가네
감자지짐 감자튀기 손꼽아도 끝없고
주식에선 기본이라오
(대사)
녀: 야, 감자가 주식에선 기본이지요.
남: 그렇구말구.
얼씨구나 감자음식 누구나 즐기여하니
우리 맛이 제일일세 장수감자

자랑하세 콩음식은 세상에서 으뜸이라
우리 민족 향취나는 장수보약 제일일세
순두부와 콩나물에 얼벌벌한 토장국
구수해서 별맛이라오
(대사)
남: 야, 구수해라.
녀: 백살장수 명약이지요.
얼씨구나 콩음식은 우리 민족 자랑이로세
우리 맛이 제일일세 콩음식이

청 원

예술영화 《청원》 중에서

이내 마음 알아다오 고동치는 내 심장아
나를 안아 키워준 그 품에 사랑만을 드리고싶어
아 바라보며는 너무도 큰 품이여서
나의 사랑 다 바치기 전에는 안길수가 없구나

이내 몸을 감싸다오 펄럭이는 붉은기여
사랑하는 나의 조국 위하여 이내 청춘 다 바칠 때
아 당이라 부르는 친근한 우리 장군님
그 품속에 영생하는 아들로 병사는 살리라

노래하자 우리의 친선의 력사를

예술영화 《형제의 정》중에서

두 나라의 붉은기 한길에서 날렸네
공화국기 오성홍기 한전호에 날렸네
피로써 안아온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자 친근한 형제의 정이여

백두산아 너처럼 조중친선 영원해
압록강아 너처럼 중조친선 영원해
생사를 같이할 우리의 우정을
노래하자 이 세상 세월의 끝까지

장군님품에 가고싶어

예술영화 《해빛밝아라》(제1,2부)중에서

이 딸을 부르는 아버지 그 모습 눈앞에 어리여오네
손저어 부르는 친근한 그 모습 뜨겁게 안겨오네
자나깨나 그리워 자나깨나 그리워 달려가 안기는 품
아 장군님 그 품에 가고싶어 가고싶어

이 딸을 부르는 아버지 그 품에 아직은 내 갈수 없어
사랑만 안겨준 고마운 그 품에 바친것 너무 적어
사무치게 그리워 사무치게 그리워 달려가 안기는 품
아 장군님 그 품에 가고싶어 가고싶어

사랑의 료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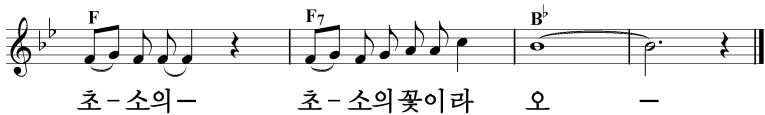
예술영화 《해빛밝아라》(제1,2부)중에서

아시나요 아시나요 녹두지짐은
김치나 돼지비게 들어가야 맛있지
도마도는 소금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대사)
정말정말 그렇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파란 오이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절입해야 맛있지
콩비지엔 시래기나 비게가 제격이지
(대사)
정말정말 그렇지

장군님 가르키신 사랑의 료리법
병사들의 식탁마다 꽃피워가자요

선군의 꽃이라오

예술영화 《해빛밝아라》(제1,2부)중에서

찬바람을 맞아도 시들줄을 모르고
눈서리에 묻히여도 향기를 풍긴다오
령장없는 병사로 조국방선 지키는
우리들은 꽃이라오 시대의 꽃이라오
라라라 라라라 랄라랄랄라
시대의 시대의 꽃이라오

따사롭게 비치는 그 해빛이 없다면
아름답게 꽃피는 우리 삶도 없다오
그 언제나 한모습 장군님만 따르는
우리들은 꽃이라오 선군의 꽃이라오
라라라 라라라 랄라랄랄라
선군의 선군의 꽃이라오

우리 맘 하나되여 행복을 가꾸어가리

예술영화 《행복의 수레바퀴》중에서

높이 날아라 나래를 주어 푸른 하늘 펼쳐준
그대 눈빛에 어렸던 믿음 고이 간직했던가
조국의 밝은 모습에 내 열정 나래가 되여
희망을 꽃피워가리

우리 수령님 한생이 어린 천금같은 그 사랑
우리 장군님 품어주시는 하늘같은 그 믿음
조국을 받드는 길에 우리 맘 하나가 되여
행복을 가꾸어가리

잎새와 뿌리

예술영화 《황철나무중대》 중에서

사연깊은 뜻을 안고 서있는 황철나무
아름드리나무아래 병사들이 자라네
해빛 따라서 천만잎새 펼칠적에
땅밑에 묻힌 뿌리 기쁨인줄 알아다오

못 잊을 추억 안고 설레는 황철나무
병사들의 그리움을 몇돌기나 새겼느냐
해빛 따라서 천만잎새 펼칠적에
땅밑에 깊은 뿌리 더 바랄것 없어라

조국이여 내 아노라

예술영화 《여기는 내 고향》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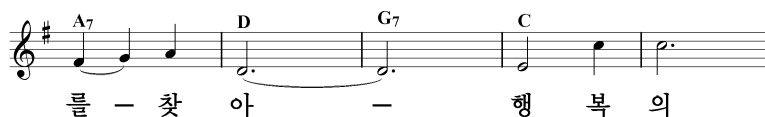
작사 공동진
작곡 려철룡

정답게

그대 맑은 하늘아래 뛰여노는 아이들이
그 얼마나 정다운지 조국아 내 아노라
그리운 혈육처럼 인민을 사랑하라
이 심장을 불태웠네 군모의 군모의 별이

조국이여 내 아노라 그대 아들 병사에겐
사랑하는 고향도 혈육도 따로 없음을
귀중한 이 땅 지켜 정다운 인민 지켜
한목숨도 바쳐가는 병사가 병사가 되리

장군님은 병사들을 사랑합니다

예술영화 《우리 정치지도원》중에서

소박한 군공에도 영예주시며
온 나라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선군조국 기둥으로 믿어주시며
장군님은 병사들을 사랑합니다

전선길 천만리에 그 사랑 넘쳐
위훈의 총창들이 번쩍입니다
생사고락 같이하는 나의 동지로
장군님은 병사들을 사랑합니다

병사들은 노래하네

예술영화 《우리 정치지도원》중에서

작사 공동진
작곡 배용삼

보통속도로 뜨겁게

맏이라고 그 사랑을 더 준적이 있던가
속태우는 막내라고 하여 덜 준적이 있던가
고왔어도 내 자식 미웠어도 내 자식
뜨거운 정 고루 나눠주던 어머니의 사랑있네

천만자식 키워도 한 자식을 키우듯
차별없는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살고 네가 사네
품을 자식 있어도 버릴 자식 없는 그 품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을 병사들은 노래하네

나에게 노래를 부르라 하며는

TV극 《그 처녀의 이름》 중에서

나에게 노래를 부르라 하며는
나는야 보람찬 창조의 노래를 부르리
값높은 위훈의 구슬땀 바쳐가며
장군님뜻으로 불타는 이 열정을

나에게 노래를 부르라 하며는
나는야 끝없는 행복의 노래를 부르리
따뜻한 해빛으로 천만복 가꾸시며
장군님 펼쳐주신 부흥의 새봄을

장군님 믿고 살리라

TV련속극 《금골의 61년생들》중에서

아버지장군님 사랑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
그 손길 내 한생 잡고서 끝까지 한길을 가리
(후렴)

고난을 헤치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던가
조국이 시련을 헤칠 때 무엇을 믿고 왔던가
(후렴)

우리 우정 변치 말자

TV련속극 《금플의 61년생들》 중에서

기쁘나 괴로울 때나 뜨거운 정을 나누며
언제나 이 가슴을 따뜻이 덥혀주었지
(후렴)

인생의 머나먼 길에 생사를 함께 나누며
오가는 우리의 정은 모진 풍파 헤쳐왔네
(후렴)

조국을 받드는 길에 동지의 사랑 알고
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우정 붉게만 피리
(후렴)

금골의 청춘들

TV련속극 《금골의 61년생들》중에서

내 사랑 기타여 울려라 우리는 금골의 청춘
지하의 전초선 지켜선 이 영예 끝없어라
장군님 아끼시는 금골의 로동계급
피끓는 청춘 바쳐 내 조국 받들리
내 조국 받들리

내 사랑 기타여 울려라 강성대국 그날엔
장군님 따라서 달려온 오늘을 추억하자
내 조국 부강위해 앞장서 달리자
피끓는 청춘 바쳐 내 조국 받들리
내 조국 받들리

봉산탈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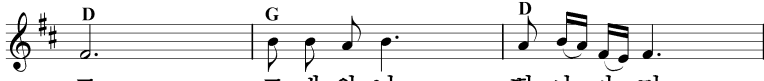
TV력사극 《봉산탈춤》중에서

웃음주고 기쁨주던 우리의 춤노래를
짓밟힌 이 땅에선 이룰수 없구나
어허허 대대로 내려오던 봉산탈춤가락이
가슴속에 사무치네 민족의 춤가락이

겨레의 그 넋을 찾아줄이 그 누구냐
구름너머 저 멀리 백두산 바라보네
어허허 대대로 내려오던 봉산탈춤가락이
가슴속에 사무치네 민족의 춤가락이

은혜론 장군님의 넓은 그 품이
민족의 넋을 안아 숨결 주었네
어허허 대대로 내려오던 봉산탈춤가락이
그 품속에 영원하리 민족의 춤가락이

떨어져 못살 우리 사랑

TV력사극 《봉산탈춤》중에서

이른새벽 맺힌 이슬 한낮이면 사라져도
달빛아래 맺은 사랑 불속에도 타지 않네
(후렴)

그리는 맘 잇는다면 오작교되리라
그대 꽃잎 떨어져도 그 향기는 영원하리
(후렴)

님 마중가세

TV력사극 《봉산탈춤》 중에서

에헤에헤 인생살이 갈수록 험산인데
추야장장 긴긴밤을 눈물로 새울소냐
에루화 둥둥 좋을시구 탈을 쓰고 놀아보자
희희락락 춤가락에 맺힌 한을 풀어보자

애국의 불

TV실화련속극 《최무선》 중에서

작사 최희건
작곡 박병우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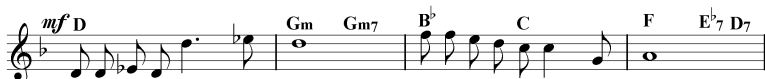
슬기로운 력사국의 정의론 민족아
우리 어이 왜적들의 노예가 될소냐
(후렴)

피가 끓어 타오르는 심장의 불이다
넋이 살아 타오르는 정의의 불이다
(후렴)

백학이 내렸네

2. 세월이 갈수록 끝없이 더하는 그리움에
나래를 펼치고 낮과 밤 떠날줄 모르네
아 수령님 받들어모시는 마음
그 마음 네 모두 안고서 조용히 내렸구나

3. 수령님 못 잊어 불타는 우리의 마음처럼
눈오나 비오나 언제나 변함이 없구나
아 장군님 위대한 충정의 세계
네 모두 안고서 여기에 영원히 내렸구나

영원히 내렸구나

장군님은 오산덕의 고향집 찾으셨네

2. 밀림속의 사향가도 추녀아래 감도는데
   뜨락가엔 어머님의 그 미소 넘치는듯
   세월이여 말하라 그리움의 언덕 넘어
   장군님은 오산덕의 고향집 찾으셨네

3. 이 땅우에 강성대국 새 봄날을 펼치시며
   어머님의 그 념원을 꽃피워오시였네
   세월이여 말하라 한평생을 바치시며
   장군님은 오산덕의 고향집 찾으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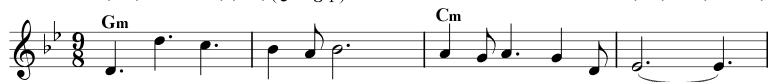
   장군님은 오산덕의 고향집 찾으셨네

오늘을 옛말할 날 꼭 옵니다

2. 초소에 어린 나무 손수 심으며
정을 담아 북을 주신 우리 장군님
락원의 푸른 숲을 그려보시던
내 조국 흥할 날이 다가옵니다
(후렴)

3. 사랑의 자욱마다 꽃들은 피여
장군님의 선군덕에 락이 옵니다
바라던 강성대국 려명이 밝아
이 땅우에 선군승리 동이 틉니다
(후렴)

오늘을 옛말할 날 꼭 옵니다

나의 마음아

작사 류동호
정서적으로 밝게(♩.=84)
작곡 박정식
Gm Cm
1.봄 빛 이 푸 르른 저 기저 언 덕 에 ―
F Cm6 D7
정 답 게 피 여난 향 기로 운꽃 들 아 ―
G7 Cm F7 B♭
해 빛밝 은날 도 ― 바 람부 는날 도 ―
Gm Cm D7 Gm
내 마음 을안 고 ― 곱 게피 ―여 라 ―
Gm Cm F7 B♭
아 ―――― 아 ――――
Gm Cm D7 Gm
해 님만 을따 라 ― 곱 게피 ―여 라 ―

2. 봄빛이 푸르른 저기 저 언덕에
가없이 비껴간 아름다운 무지개
령을 넘어 천리 강을 건너 만리
내 마음의 다리 놓아주려마
아 그리움의 다리 놓아주려마

3. 봄빛이 푸르른 저기 저 언덕에
언제나 한마음 고이 얹고 살리라
세월끝에 가도 세상끝에 가도
해님만을 따를 나의 마음아
아 장군님만 따를 나의 마음아

비약의 선군룡마 달린다

2. 선군의 기상으로 천리만리 주름잡아
나래펼친 선군룡마 우뢰치며 달려간다
(후렴)

3.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문을 열고
세계우에 우뚝 솟은 내 조국을 자랑하리
(후렴)

아 승리의 신심높이 비약의 한길로
달린다 선군룡마 달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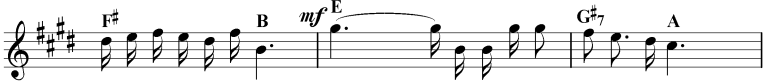
우리의 래일은 아름다워라

2. 장군님 계시기에 신심에 넘쳐
세월을 주름잡아 비약해가네
주체철 노을속에 최첨단 동음소리 울려가는
그 길에 부강한 미래가 꽃피여나네
우리의 래일이여 너는 아름다워라

3. 장군님령도따라 가는 이 길에
강성대국 해돋이가 밝아온다네
이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며 달려가는
그 길에 찬란한 미래가 꽃피여나네
우리의 래일이여 너는 아름다워라

우리의 래일이여 너는 아름다워라
아

나의 노래

밝고 가볍게
작사, 작곡 장설봉
1. 울려 가라 나—의노래 이가슴에 넘쳐나는내노래
구름 너머 령—을넘어 아름다운새가되여날아가주
렴 전선길 저멀리 그이계신곳으로 달리는 이마음
나래돋힌노래여 아 -하하하하 나의 노래
아 -하하하하 구 름 너머 라랄 라라라아하하
라랄 라라라아하하 노 래 여 울 려 가 라

2. 울려가라 나의 노래 심산속의 꽃과 같은 내 노래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봄바람에 꽃잎되여 날아가주렴
전선길 저 멀리 그이 계신 곳으로
달리는 이 마음 향기넘친 노래여
아 하하하하 나의 노래 아 하하하하 저 산 넘어
라랄라라라 아하하 라랄라라라 아하하 노래여 울려가라

3. 울려가라 나의 노래 참대같이 변함없는 내 노래
해와 달을 넘고넘어 저 하늘의 별이 되여 날아가주렴
한없이 그리운 그이 계신 곳으로
달리는 이 마음 그리움의 노래여
아 하하하하 나의 노래 아 하하하하 세월 넘어
라랄라라라 아하하 라랄라라라 아하하 노래여 울려가라

비단의 노래

2. 푸른 비단 둘러볼가 붉은 비단 둘러볼가
시집가는 고운 처녀 분홍공단 차렸구나
비단옷에 감싸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
처녀야 고운 처녀야 비단꽃으로 피였구나

3. 금비단에 모셔볼가 은비단에 모셔볼가
생일날에 어머니가 옥색공단 차렸구나
장군님의 그 사랑에 눈시울을 적셔가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비단꽃속에 묻혔구나

비단필에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담아
노래하자 조선비단아 좋은 세월 노래하자

우리 며느리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정을 담아서 (♩=68)
1. 사진보고인 물-고- 와 내집문을열 었-던-
가 만나보고마 음-끌- 려 내식 구 로맞 았-던-
가 오만공수품 을들여 정히키워보낸자-식
혈육의정이 어주니 제가낳은딸이됐-네 에헤 요 에-헤-
요 정다 워 라우리며-느- 리 봄종 다 리노래하며
날 아-온-듯 나는 좋 아우리며-느- 리

2. 살림에는 빛갈고운 행복의 꽃 피워놓고
생활에는 향기짙은 화목의 꽃 가꿔가네
시부모를 대할 때는 이리 봐도 친딸이요
시동생들 돌볼 때는 저리 봐도 친누이야
에헤요 에헤요 정다워라 우리 며느리
동지섣달 눈속에 핀 꽃 보는듯
나는 좋아 우리 며느리

3. 온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 잘된다는
어버이의 친필글발 거울처럼 보며 사네
동네방네 집집마다 부러워서 칭찬할 땐
늙었어도 이제라도 아들 열은 더 낳고파
에헤요 에헤요 정다워라 우리 며느리
함께 가면 밝은 해도 반기는듯
나는 좋아 우리 며느리

우리 장군님 제일 기쁜 날

작사 윤두근
작곡 김문혁
밝고 절절하게 (♩=75)
mp
Em Am Em Am B7
1. 품 을들-여 새로세운- 거리를- 돌아보시 며
E7 Am B7 Em
경 사로-운 새집들이- 그날을- 그려보는 가
mf
E7 Am D7 G F6-5
받아안고 행복에 설 레일 인민들을 생각하 며
1. 2.
3.
E7 Am D7 B7 Em Em
장군님은 기쁨의 미 소를 해빛처럼 지으시 네 라
mf
E7 Am D7 G F6-5
온나라에 사랑을 주 는날 인민들이 받는날 이
E7 Am D7 B7 Em
장군님의 한평생 날 중에 제일기쁜 날이여 라

2.이날위해 바쳐오신 로고는 다 잊으시고
집집마다 넘쳐나는 웃음을 들으시는가
마음속에 소중히 품어온 그 소원이 풀리신듯
장군님은 만시름 잊고서 떠나시지 못하시네

3.우리에게 사랑주려 이 땅에 그이 계시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 품에 우리 사는가
이 세상의 만복을 다 합쳐 인민에게 주는것이
장군님의 한평생 뜻이고 보람이며 락이여라

온 나라에 사랑을 주는 날 인민들이 받는 날이
장군님의 한평생 날중에 제일 기쁜 날이여라

생일날의 축배

2. 자그마한 출생증에 오른 이날이
그 얼마나 큰 행복을 안겨주었나
당의 품에 한해두해 성장하면서
은혜로운 내 조국도 알게 되였네
(후렴)

3. 이 하루는 어머니가 주었지마는
그늘없는 삶의 한생 당이 주었네
우리 때로 생일날은 가끔 잊어도
그 품에서 자란 나이 어이 잊으랴
(후렴)

생일축하의 노래

2.부모형제 친우들 바라는 마음
행복넘친 잔마다 넘쳐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배를 받으시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3.밝은 해는 사랑의 빛을 뿌리고
노래속에 기쁨은 끝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을 받으시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이여 그대가 부른다면

2. 키워준 그 사랑은 새길수록 힘이 솟고
성스런 당기앞에 다진 맹세 뜨거워라
(후렴)

3. 신념과 의리로 굳게 뭉친 당과 인민
그 힘의 무한대를 이 세상은 다 몰라라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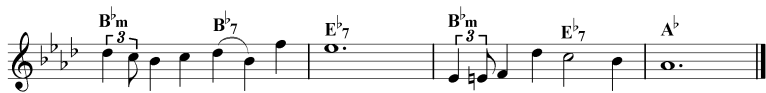
내 마음의 꽃다발

2. 눈비오고 바람차도 인민위해 헤치시는
그 헌신의 자욱자욱 따라서는 이 마음
좋은 날만 펼치라고 하늘에 말을 하랴
아 내 열정 불태워 날마다 엮어가리
우리 장군님 안녕 바라는 내 마음의 꽃다발

3. 낮과 밤을 이으시며 인민위해 끝이 없는
그 헌신의 천만리를 안고사는 이 마음
쉬실 시간 드리라고 세월에 말을 하랴
아 애국의 열매로 축원을 엮어가리
우리 장군님 안녕 바라는 내 마음의 꽃다발

내가 반한 그 총각

2. 공장대학 최우등생 로동자발명가로
한몫하는 그 모습 정말 돋보여
그 가슴에 혁신자의 꽃다발 안겨줄 때
울렁거린 내 마음 몰라도 좋아
(후렴)

3. 신심높은 걸음으로 세계를 앞서나갈
열정넘친 그 모습 얼마나 장해
그 열정을 나도 안고 비약의 걸음 맞춰
대고조의 앞장에 함께 설테야
(후렴)

12월의 눈송이

2. 삼지연 진달래 꽃잎이 날리나
12월의 눈송이 곱게도 내리네
어머님 추억으로 지새는 창가에
그 한생 새겨주며 정히도 내리네
(후렴)

3. 하늘땅 가득히 이 가슴 가득히
12월의 눈송이 내리고내리네
백두산어머님 천만년 모셔갈
우리의 마음처럼 끝없이 내리네
(후렴)

가화만사성

작사 차영도
작곡 안정호
다정하게 (♩=120)
1. 집집마다거울처 럼 걸 어놓았네 가정화목꽃피우 라
가 르친글발 세상만사밝혀주 는 해 빛과갈이
내조국에빛을뿌리 네 (후렴) 정을 다 해꽃피웁시
다 위대 하 신어버이그 뜻 사랑다 해꽃피웁시
다 온나 라 에가 정의화 목 삶의
진 리새기여주 는 친필 글 발 가화만사 성

2. 억만금은 집안그늘 못 가시여도
가정화목 만복의 문 열어준다네
웃음속에 모든 가정 화목해지면
내 조국은 더욱 빛나리
(후렴)

3. 수령님이 가르치신 가화만사성
장군님이 꽃피우신 가화만사성
만경대의 가문에서 꽃펴난 가풍
내 조국에 영원하리라
(후렴)

영웅의 계주봉 이어잡으리

2. 원쑤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영웅은 열여덟 나도 열여덟
중기의 압철을 입으로 누른
영웅은 민청원 나도 동맹원
(후렴)

3. 오늘은 우리가 넘기여잡고
래일은 후대들 물려받으리
넘기고 받으며 가는 이 길에
승리의 전통은 이어진다네
(후렴)

사과꽃 만발할 때

작사 차영도
작곡 안정호

다정하게 (♩=96)

2. 이 땅에서 처음 보는 사과바다에
꽃분이와 칠성이는 땀을 바쳤네
둘이 함께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온 나라에 그 일솜씨 소문을 냈네
(후렴)

3. 첫물사과 앞에 놓고 올해 가을에
꽃분이와 칠성이는 잔치한다네
무릉도원 고향마을 꽃피워가며
행복속에 보답의 길 함께 간다네
(후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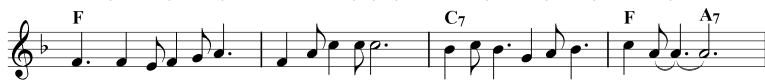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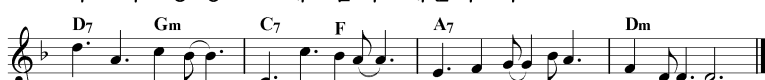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작사 윤두근
작곡 우정희

랑만적으로 힘있게 (♩=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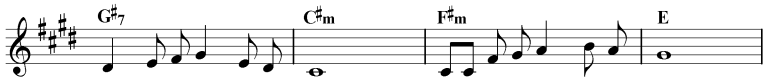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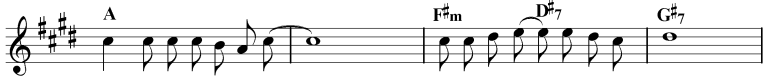
2. 천년이 흘러도 손색이 없게
순결한 량심을 묻는다
만년이 지나도 력사에 남게
금별의 위훈을 새긴다
(후렴)

3. 이 땅에 솟아난 기념비 보며
먼 후날 후대들 말하리
로동당시대를 누리에 빛낸
참다운 애국자 누군가
(후렴)

제힘이 제일이야

2. 만복이 쏟아질 강성대국의
그 대문 어떻게 열랴
최첨단기술로 우리가 만든
선군의 열쇠로 열지
(후렴)

3. 강하고 흥하며 잘사는 나라
이 땅에 어떻게 서랴
총대의 기둥에 높이 받들려
이 세상 중심에 서지
(후렴)

구 면 친 구

작사 오영재
작곡 우정희
랑만적으로 (♩=142)
1. 줄지어선 CNC의- 멋진기계 쓸어보며-
나의구 면 친구라고- 정-답게부르셨 네
얼 마나어 려운 날 품-들여키 웠으 면
그 -처 럼 친근하게- 불 러-주시였으 랴
(후렴)
아 — 구면친구- 일 잘하는 구면친구-
장 군님사랑안고 - 강성부흥-노래하 네
강성부 흥 노 래 하- 네 -

2. 우리의 힘 우리 지혜 슬기롭게 어려있어
그 언제나 반기시는 자랑많은 구면친구
내 나라 인재들이 얼마나 귀중하면
그처럼 값높이 불러주시였으랴
(후렴)

3. 은혜로운 손길아래 태여난 구면친구
오늘은 온 나라의 구면친구되였네
만만한 배심으로 세계향해 비약하며
최첨단돌파전의 포성을 울려가네
(후렴)

무르익으라

2. 내 고향의 뒤산에도 산딸기철이겠지
총을 잡은 젊은 병사 고향을 그려보네
장군님의 품속에 꽃펴나는 이 땅을
목숨바쳐 지켜갈 맹세 불탔네
(후렴)

3. 이 나라의 산과 들에 열매여 주렁지라
황금이삭 물결치고 행복은 만발하라
번영하는 조국에 아침인사 드리며
젊은 병사 총대를 굳게 잡았네
(후렴)

조선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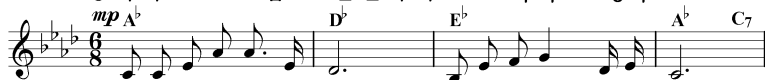
작사 오영재
작곡 우정희
힘있게 (♩=118)
mf
1.폭풍 안고 비약하는 조-국 땅어데서
나 인민들은 부-르네 어-버 이그이-
름 우-리 러그 리면 용맹이솟고 기-
적 과위-훈이 나래펼치네 그이는 -천만의
(후렴)
불 타는심장 그이는 -천만이 군게뭉친힘 우-
리의 김정일장군 그이는 조선의힘이다

2. 강철같은 령장의 봄날같은 그 미소
그 사랑의 힘으로 시련도 이겼네
백두산의 무게로 다지여주신
선군의 내 조국은 강대하여라
(후렴)

3. 애국은 그이의 힘 그이는 정의의 힘
강적도 쳐부시고 주체강국 세워가네
진리의 보검을 틀어쥔 손길
백승의 이 조선을 향도하신다
(후렴)

수령님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시랴

예술영화 《성강의 파도》(제1,2부)중에서

수령님 바라시던 그 념원 꽃피우며
고난의 그 길에서 열백번 쓰러진대도
장군님 바치시는 헌신의 자욱따라
우리는 시련도 웃으며 헤쳐가리

우리는 제것으로 세계를 향하여
부강한 내 조국을 더 높이 세워가리
장군님 바치시는 헌신의 자욱따라
수령님 평생념원 기어이 꽃피우리

수령님 보신다면 얼마나 기쁘시랴
김정일장군님 그 념원 풀어주셨네

성강의 파도여

예술영화 《성강의 파도》(제1,2부)중에서

작사 김수성
작곡 조성수

격동적인 마음을 안고 의지적으로

내 조국의 운명 걸고 용해공들 일떠서던
파도파도 그 용맹 너는 기억하리
수령님념원이 피로 끓어
우리와 생사를 함께 해온
성강의 파도여

용해장의 주체쇠물 사품치며 굽이칠 때
파도파도 격랑치며 너도 설레여라
장군님리상을 꽃피워갈
우리의 신념이 붉게 어린
성강의 파도여

주체철 승리 만세 부르자

예술영화 《성강의 파도》(제1,2부)중에서

아 폭풍안고 흐르라 조선의 쇠물아
아 만세높이 부르자 오늘의 승리를
수령님의 평생념원을 이 땅우에 꽃피우신
장군님의 사랑 안고서 사품쳐흐르라

우리의 장군

예술영화 《강철의 령장》중에서

따뜻한 해빛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인민의 기쁨이 노래로 넘치는 나라
람홍색기발이 휘날리는 이 하늘아래
행복만 안겨주는 우리의 **김일성**장군

그 누가 장군처럼 조국을 사랑하랴
그 누가 장군처럼 인민을 위해주시랴
이 땅의 평화를 총대로 수호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우리의 **김일성**장군

백두의 산악이 천만년 끄떡없듯이
김일성장군의 조선은 영원하리라

내 마음 비쳐보네

예술영화 《인민이 너를 아는가》중에서

작사 김석천
작곡 김수남

보통속도로 뜨겁게

저 하늘 붉은 노을에 내 마음 비쳐보네
내 진정 인민이 아는 모습을 빛내였던가
소리없이 한몸을 태워 붉은빛을 남기는
열정의 노을처럼 인민을 위하여 살리

저 멀리 산과 강들에 내 마음 비쳐보네
우리의 장군님처럼 인민을 사랑했던가
자나깨나 이 가슴속에 그 뜻을 새기며
장군님 기억하시는 인민의 충복이 되리

빛 찾아가는 길

예술영화 《맹수사냥군》중에서

총칼에 찢긴 몸 피가 흐르고
노예가 된 이 운명 언제 끝나나
겨레 구원할 희망의 새별이
떠오를 그날 아 오리라

검은구름 저 하늘 가리웠어도
백두의 새별은 앞길 밝히리
이 몸 죽어도 그 빛을 간직한
이 땅에 넋이 아 되리라

보위의 한길 가리

예술영화 《미결건은 없다》중에서

잃고선 살수 없는 내 삶의 품을 지켜
숭고한 의무의 길 후회없이 가고가리
(후렴)

내 한생 빛내리

예술영화 《눈속에 핀 꽃》중에서

눈속에 꽃이 핀다고 그 누가 믿으랴
뜨거운 심장 불태워 푸른 싹 키우리
장군님뜻을 받들어가는 애국의 한길에서
시대의 꽃으로 내 한생 빛내리

래일을 위하여

예술영화 《우리의 래일은 더 푸르다》중에서

가없이 펼쳐진 푸른 저 하늘 가슴에 안으니
끝없이 샘솟는 청춘의 열정 내 마음 불타네
(후렴)

태양이 있기에 푸른 저 하늘 영원하듯이
장군님 계시여 우리의 미래 찬란하여라
(후렴)

최첨단 봉우리에로

예술영화 《우리의 래일은 더 푸르다》중에서

일하며 쌓은 지식의 탑은 기적의 새 열쇠
부강한 조국 높이 떠받들 기둥이 된다네
(후렴)

CNC동음 높이 울리는 흥겨운 일터에
장군님뜻을 꽃피워가는 이 자랑 끝없네
(후렴)

내 한생의 소원

예술영화 《소원》중에서

자식들이 바라는 소원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실 장군님
온 세상 부럽도록 만복을 주시고도
그 사랑이 적으신듯 주시고 또 주시네

천만자식 마음은 그이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은 인민이 다 압니다
한평생 수령님의 념원을 빛내시는
장군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꽃피우리

강성대국 봄맞이

예술영화 《아버지가 오는 날》중에서

시대의 부름에 발걸음 맞추어가며
랄라라 랄랄라 나도야 달려갈테야
(후렴)

천만이 달리는 장쾌한 발구름소리
랄라라 랄랄라 시대의 교향악소리
(후렴)

귀중한 내 동무야

TV련속극 《우리 녀자축구팀》중에서

열정의 노래 안고 함께 가는 내 동무야
우리는 한마음으로 진정을 나누었지
평범한 나날에는 한없이 소박해도
조국을 위해 피가 끓는 귀중한 내 동무야

정다운 내 동무야 사랑하는 내 동무야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알지
장군님선군길을 따라서 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 변치 말자 귀중한 내 동무야

우리 녀자축구선수들

TV련속극 《우리 녀자축구팀》 중에서

작사 권오준
작곡 박병우

랑만적이며 경쾌하게

사생결단 달리자 피땀을 아끼랴
그 어떤 강팀도 두렵지 않다
장군님담력을 안고서 끝까지 싸우자
승리를 승리를 떨치리 우린 녀자축구선수들

처녀의 매력은 그 어디에 있는가
청춘의 기개와 열정에 있다네
꽃나이시절에 축구와 인연을 맺고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리 우린 녀자축구선수들

두렵없이 달리자 우리 힘 백배해
조국이 우리를 지키여본다
세상에 보여주리라 조선의 본때를
람홍색국기를 날리자 우린 녀자축구선수들

승리 승리 승리

장군님 그리며 달렸습니다

TV련속극 《우리 녀자축구팀》 중에서

우리의 소박한 생각도 헤아려준 그 사랑속에
꿈에도 바라던 소원이 꽃폈습니다
장군님 그리며 달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 장군님 고맙습니다

푸르른 희망을 펼쳐준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따뜻한 태양을 우러러 맹세합니다
장군님 그리며 달리렵니다 이 세상 끝까지
아 장군님안녕을 바라옵니다

아름다운 화원속에서

TV토막극 《꽃은 이미 받았어요》련속편중에서

강산엔 해빛 넘치고 가슴엔 정이 넘치네
따뜻한 인정속에서 너와 나 우리가 사네
서로서로 존경하며 오고가는 그 인사
례절속에 화목하니 친형제의 정인가

강산엔 해빛 넘치고 가슴엔 자랑 넘치네
거리의 사람들 모습 볼수록 아름다워라
산뜻한 옷차림들 천만송이 꽃송이
너도나도 선군시대 선녀선남이런가

강산엔 해빛 넘치고 가슴엔 보람 넘치네
소중한 우리의 생활 알뜰히 꾸며간다오
일터마다 집집마다 절약기풍 넘치니
늘어나는 우리 살림 솟아나는 샘인가

강산엔 해빛 넘치고 가슴엔 희망 넘치네
남의것 번쩍거려도 내것이 제일로 좋아
서로 돕고 이끌면서 우리 식을 지키니
사회주의생활양식 제일멋이 아닌가

강산엔 해빛 넘치고 가슴엔 사랑 넘치네
따뜻한 요람속에서 너와 나 우리가 사네
미덕으로 웃음많은 사회주의대가정
빛내가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생인가